

# “책도 작품처럼 만들면 늘 살아 움직인다”

## 디자인 관련도서 등 미술출판의 처녀림 일궈온 ‘미진사’

서점가에서 미진사는 가장 박한 마진을 주는 출판사로 유명하다. 대개가 정가의 60~65%에 입고시키는 것과는 달리 미진사의 책은 85%에 들어간다. “초판의 경우 정가의 80%가 제작비인데, 어떻게 그 이하로 줄 수 있는가”는 게 미진사측의 반문인데, 그렇다고 서점측이 싫은 소리라도 할라치면 “책은 독자가 찾아오는 거지, 서점이 나서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정색을 한다. 미진사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미술, 그 가운데서도 디자인 영역의 출판을 일궈와 이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자부심이 크게 한몫을 한다.

### 절반 가량이 대학교재로 나가

열화당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술출판의 양대 산맥인 미진사는 집안사정 때문에 대학(한양대 광고과)을 중퇴하고 부산에 내려가 대한도서 영업부에서 1년여간을 책을 만지면서 ‘출판’과 첫 인연을 맺은 김현표(51)씨가 73년 문을 열었다. 미술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닌 그가 처음부터 미술 영역만을 고집하는 ‘전문출판’을 표방한 것은 다소 우연적이고 직감적인 면이 있다. 그는 “디자인 쪽이 나의 흥미를 당기더라”고 말한다. 그렇게 직감에 끌려 “형극으로 뛰어드는 일을 자초”했던 그는 이후 두 번에 걸쳐 출판사의 문을 닫는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다시 재기하여 이제는 대형서점 매출액 20, 30대 순위에 드는 ‘튼실한’ 출판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처럼 전산사식이나 컴퓨터가 전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던 시절 도안사가 직접 ‘그

려’ 만든 「문자디자인」을 첫 ‘작품’으로 내놓은 뒤 미진사는 ‘이미지 미디어’ ‘오늘의 시각예술’ ‘미진신서’ ‘디자인’ ‘미술기법’ ‘색채’ ‘공예·도자’ ‘사진·판화’ ‘한국미술·동양미술’ ‘서양미술’ ‘아동미술’ 등의 갈래를 나누며 저작물들을 쌓아올린다. 17년간 펴낸 책은 총 200여종. “1년에 500부 이하 나가는 책은 절판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움직이는’ 책은 150여종이다.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도 특별한 스테디셀러도 없다. 다 비슷비슷하게 나간다”는 게 출판사측의 이야기다. 평균적으로 보아 국내서와 번역서의 비율은 3:7. 그러나 점차 국내 저술이 늘어나고 있어 외국에 의존해 왔던 미술이론이 어느 정도 극복을 보이고 있다. 미진사의 또다른 자랑거리는 화려한 수상경력이다. 문공부추천도서만도 20여종이 넘고, ‘오늘의 책’ ‘국민독서자료추천도서’ ‘한국출판문화상’에 선정·수상된 책들도 상당하다. 스스로가 양서출판이라 자랑하지 않아도 그 다양한 경력으로 간단하게 입증되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문학사」와 같이 81년 초판 2000부를 찍어 13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다 팔리는 책들처럼 화려한 수상경력이 판매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다.

여는 미술책과는 달리 미진사의 책은 상대적으로 보아 가격이 싸다. 5000원원에서부터 비싸도 12000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사장 김현표 씨는 가격이 책의 권위를 지켜준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다. 보다 많은 독자를 끌어안기 위한 전략일까. 물론 인쇄나 제본과 같은 책의 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담보로 해서가 아



미진사 편집실. 1년에 20종 정도 펴낸다.

니다. 그것은 최고여야 한다. 비결은 그 자리에서 지급하는 현금결제와 그동안 쌓아올린 업체간의 신뢰이다.

### 홍대앞 위치, 미대교수들의 사랑방

미진사가 요즘처럼 재정의 압박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책만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몇년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모되면서 그 파장이 근근히 베풀었던 디자인 출판사에 상업적 호기를 가져다준 것이다. 홍대앞에 있는 현재의 사옥도 그 즈음 구입한 것이다.

직원원은 모두 15명. 민미협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주재환(56)씨가 비상근 편집주관을 맡고 있다. 사진이나 컬러화보가 많다 보니 편집부

도 편집의 고유기능보다 제작쪽에 더 막중한 책임이 부과된다. 대개 2번 보는 색분해를 5회 본다든지 인쇄소에서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리고 몇가지의 제작원칙도 있다. 그 한가지가 절대 제작처에 재촉하지 않는 것. 설명 저자가 와서 신학기에 1000부를 팔아줄 테니 때를 맞춰달라 해도 인쇄소를 독촉하는 일은 없다. 그러다보니 저자의 손을 떠난 원고가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평균 5,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김현표 사장은 “더이상 남이 만든 것을 가져오는 게 싫다”며 이전에 야심있게 기획했다 필자부족으로 성사시키지 못했던 「한국의 민간공예」 총서처럼 우리전통의 미를 찾아가는 작업을 앞으로는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 정혜옥 기자

**호산방**  
HOSANBANG Rare Books

“  
호산방은  
30년후를 생각하는  
고서점입니다.  
”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한일빌딩 아케이드 7호  
전화 722-8029, 723-7431 팩스 722-6642  
<광화문 우체국 옆 한일은행 건물>

### 판매 도서 목록

- 09423 滿月台: 朴容九 正音社 1954.9. / 50,000원
- 09767 希望: 安夕影 金龍도서주식회사 1948.10. / 200,000원
- 09822 山桃花: 朴木月 英雄出版社 1955.12. / 50,000원
- 09927 主의 곁에서: 朴和穆, 林仁洙 大韓基督教書會 1961.12. / 20,000원
- 10373 懸吐漢文春香傳: 俞喆鎮 東昌書屋 1917.11. / 300,000원
- 10489 朝鮮常識問答續編: 崔南善 東明社 1947.12. / 50,000원
- 10711 朝鮮統治論: 靑柳綱太郎 朝鮮研究會 1923.4. / 200,000원
- 10715 佛敎大典: 韓龍雲 梵魚寺 1914.4. / 300,000원
- 10735 男寺黨: 金松 崇文社 1949.3. / 100,000원
- 10740 要路院夜話記: 李秉岐 乙酉文化社 1953.7. / 50,000원
- 10749 朝鮮殉敎史: 浦川和二郎 全國書房(日) 1944.5. / 200,000원
- 10788 한국민요오십곡집: 김기수 국립국악원장악과 1958.3. / 50,000원
- 10801 俗談大辭典: 朝光社 1941.8. / 100,000원
- 10805 馬耳東風帖: 金素雲 高麗書籍 1952.7. / 50,000원
- 10833 角于先生實記: 木版本 金庚信 2冊 / 400,000원
- 10837 近思續錄: 木版本 2冊 / 100,000원
- 10844 朝鮮語文法: 周時經 正音社 1946. / 100,000원
- 10857 訓民正音: 朝鮮語學會 1946.10. / 100,000원



09423. 滿月台